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9.12 / NO.20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영화제

독립영화, 경계를 넘어

독립영화
해외배급
스페셜

Independent Film
OVERSEAS Distribution
Special

NOW가 어느덧 20호를 맞이했습니다. 창간준비호까지 포함하면 총 스물한 번 발간되었고, 매번 다른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간 NOW를 통해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또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기록됨으로써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기를 다시금 새삼 바라 봅니다.

이번 NOW에서는 독립영화 해외배급을 맡은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첫 독립영화 전문 배급사인 인디스토리가 골레르몽페랑 단편마켓에서 처음 여덟 편의 단편 독립영화를 소개한 이래, 한국 독립영화의 해외배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또 소셜미디어에서 독립영화가 해외에서 주목받은 사례를 접하고는 하지만 그 영화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소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영화가 어떤 곳에서 관객을 만났는지, 한 편의 영화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선명하게 짚어내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고민과 열정, 부지런한 종횡무진이 수많은 독립영화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호에서 만난 인디스토리, 시네마달, 엠라인 디스트리뷰션, 레인보우팩토리의 공존과 상생이 오랫동안 창작자와 관객 사이를 탄탄히 연결해주기를 소망합니다.

NOW 20호는 여러 시공간을 오갑니다.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NAFC와의 공동 쇼케이스 및 워크숍 소식, 연기라는 시간의 더께를 골똘히 매만지는 작품 <나의 연기 워크숍>을 꺼내든 <다른 영화 말고 너>,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를 추억하는 토끼리의 만화가 만난 결과입니다. 사뭇 다른 질감의 이야기들이 어떤 무늬의 태피스트리를 만드는지 보는 것이 재미납니다. 해가 바뀌고 새 계절이 돌아오면 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무슨 이야기든, 도란도란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김송요

03**SPECIAL****04****엠라인 디스트리뷰션****손민경 대표****08****인디스토리 이영인 &****시네마달 강봉수****12****레인보우팩토리****김승환 대표****16****SIFF NOW****- SIFFxNAFC****19 다른 영화 말고 너****<나의 연기 워크숍>****20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INDEPENDENT FILM OVERSEAS Distribution special

NOW 20호가 만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로 국내외를 연결하는 이들입니다. 단편 독립영화에서 시작해 지금껏 꾸준히 독립영화의 제작 및 국내외 배급을 함께하고자 하는 인디스토리과 독립다큐멘터리라는 특수하고 고유한 영역을 관객에게 선보이고자 힘쓰는 시네마달에서 각각 해외배급을 맡고 있는 이영인 대리과 강봉수 담당자,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넘나들고 아우르며 매력적인 영화들을 해외에 소개하는 엠라인 디스트리뷰션의 손민경 대표, 해외배급사와의 공조를 통해 장편 퀴어영화를 배급하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 단편 퀴어영화를 소개하는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각 단체마다의 성격도 방식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 영화를 새로운 관객에게 소개하는 데 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과 닮은 마음으로 일구어지는 독립영화 해외배급의 이모저모를 전합니다.

유연하게 밀고 나아가는 힘에 관하여

엠라인
디스트리뷰션
M-LINE
DISTRIBUTION

손민경 대표



2008년 설립된 M-LINE DISTRIBUTION(엠라인 디스트리뷰션, 이하: 엠라인)은 지금까지 250 여편의 독립·예술영화를 해외배급하는 데 힘써왔다. 작년과 올해만 해도 <리틀 포레스트>, <반신반의>, <녹차의 중력>, <미쓰백> 등 오랜 시간 작업한 기성 감독의 작품부터 <밤치기>, <아워 바디>, <보호와 녹양>, <나는보리>, <메기> 등 독특하고 신선한 스타일로 주목받은 신인 감독 작품 등을 해외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한국 영화 해외 세일즈 1세대인 엠라인 손민경 대표는 그간 <올드보이>, <주먹이 운다> 등 칸영화제 수상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긴 시간 산업을 이끌어 온 주역이다. 영화가 좋아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비행기 탈 힘만 있다면 이 일을 계속해나가고 싶다는 손민경 대표를 만났다.

영화 해외배급이라는 일에 매력을 느낀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영화를 좋아해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에서 일했었다.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 이용관 이사장과 친분이 있었다. 부국제가 생기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이다. 그다음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1997, 98년 당시엔 프랑스에 배급되는 한국 영화가 거의 없었고, 아주 가끔 예술영화관에서 김기덕 감독 영화를 상영해서 친구들끼리 보러 가고 그랬었다.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같이 토론하고, 관심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고, 해외배급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

칸영화제에 놀러 갔는데 마침 <춘향뎐>이 칸 경쟁 부문에 진출했을 때라 '코리아픽처스'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됐다. 내가 불어를 할 수 있으니 통역을 조금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 2000년대 초반에 코리아픽처스에서 일하게 됐다. 2003년, 김동주 대표가 독립해 '쇼이스트'를 세웠을 때 같이 넘어와서 <시카고>나 <갱스 오브 뉴욕> 같은 외화 수입 일을 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수입과 대응하는 것이 수출이니까 수출도 해보자, 세일즈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2004년부터 배급 일을 하게 됐다. 당시 허진호 감독의 <외출>이라는 큰 작품을 맡았는데,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700만불이라는 수출액을 기록했다. 물론 주연이었던 배용준 배우의 도움이 컸다.(웃음)

그러다 2008년에 엠라인을 열었다.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 중인데.

내 모토가 '빛지고 힘들게는 일하지 말자'다.(웃음) 하다 안되면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1년이 넘었다. 당시 다니던 쇼이스트가 문을 닫고, 이직을 고민하던 시점에 지인들이 이제 네가 직접 해보라는 말을 하더라. 처음 회사 문을 열 때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관리하는 작품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나를 포함해 총 5명이 일하고 있다. 그중 메인으로 일하는 과장급 3명이 9년 차다. 이들이 오랫동안 버텨 줘서 걱정하지 않고 실무를 맡길 수 있었다. 영화제 담당을 비롯해 미주, 유럽, 아시아, 중국 담당이 나뉘어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대다수 독립·예술영화의 해외배급을 진행해왔다. 다양한 영화 중, 특히 독립·예술영화 배급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

아시아 작은 나라의 감독이 영화제에 참가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해하는가를 부국제에서 경험했다. 그 감독들에게는 전재산을 모아 힘들게 만든 영화를 어디선가 보여줄 기회가 중요한 것이다. 한국 독립·예술영화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적으로도 메이저 스튜디오 위주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 독립영화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독립영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계속 만들 것이고, 또 누군가는 계속 찾아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가는 입장에서 많이 팔리는 상업적인 작품도 필요하지만 독립영화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배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매거진 이번 호에 같이 인터뷰한 시네마달이나 인디스토리 같은 회사는 이러한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는 회사다. 함께 오래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렇다면 해외배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말 그대로 '한국 영화를 해외에 배급하는 일'이다. 작품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장 좋은 형태는 작품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감독 및 제작자와 관계를 맺고, 함께 방향과 톤 앤 매너를 정하는 것이다. 배급 과정에서는 먼저 모든 것을 영문화하는데, 영문 제목을 짓고 영어 자막을 만드는 일부부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올드보이> 대사 중에 이름이 '오늘만 대충 수습해서 이름이 오대수'라는 대사가 있다. 이 대사를 영어로 도대체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웃음) 박찬욱 감독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다.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민해야 하니, 스킬이 필요한 일이다. 작품 정보가 정리되면 마켓과 영화제 출품 준비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홍보, 영화 마케팅이다. 포스터 하나를 만들더라도 배우 얼굴 위주로 만드는 국내 포스터와는 달리 해외 포스터는 장르성을 가미하는 편이다. 투자사나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많이 팔리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아주 중요한 수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영역을 오가며 1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엠라인은 아시아필름마켓, 칸영화제, 유러피안필름마켓 등 국제 영화제에 매년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영화제와 해외배급사는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 같다.

해외배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반년 먼저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내년 베를린, 칸영화제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 작품 선정뿐 아니라 집기 구매, 장소 렌트를 비롯해 신경 쓸 것이 많다. 일 년에 대여섯 번 마켓에서 바이어를 만난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유대관계가 쌓여 라인업을 소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작품 중 배급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으니 경험과 시간이 쌓여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사실 모든 영화가 다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영화 감독들이 가장 기댈 수 있는 것이 영화제 참석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영화제 출품이 오히려 세일즈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간은 제한적이고 출품 작품 수는 워낙 많으니, 프로그래머나 심사위원이 절대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해외 세일즈사와 프로그래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작품을 프로그래머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데 해외 영화제는 출품비를 받는 곳이 많고 100불, 300불 되는 출품비가 모이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들기도 한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작품들은 해외배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 가장 돈이 들지 않는 방안을 찾아 접수를 도우려 한다. 우리 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드바이스를 주기도 하고.



<남매의 여름밤>



<야구소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약 250편의 작품을 배급했다. 대표작을 꼽는다면? 혹은 남은 올해와 내년 주력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작품을 꼽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웃음) 배급했던 작품 중 강형철 감독의 <과속스캔들>이 떠오르는데, 이 작품은 10년 넘은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 계약을 하고 있다. 좋은 영화 콘텐츠 하나가 지속해서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다. 최근에는 내년 개봉하는 변성현 감독의 <킹메이커>가 크레딧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고,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나문희 배우가 출연하는 <감쪽같은 그녀>, <오! 문희>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 2월 유러피안필름마켓이 다음 마켓이 될 것 같다.

라인업을 살펴보니 <남매의 여름밤>, <야구소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세상에 없는>, <프랑스 여자>, <하트> 등 서울독립영화제2019에서 상영된 작품도 정말 많다. 작품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부국제나 서독제에서 상영한 독립영화 화제작 등을 해마다 5-6편 정도 배급하고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작품도 계속 배급한다. 신인들이 잘 되는 게 좋더라. 요즘에는 대기업도 거의 인하우스로 해외배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하우스가 없는 메가박스, 워너브라더스, 이십세기폭스코리아와도 일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뢰를 받는 입장이다. 감독이나 제작사에서 세일즈사를 알아보다가 추천을 받아 연락해 시작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해외의 각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영화가 다를 것 같기도 하다. 영화와 지역을 매치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있나?

유럽, 미주, 아시아마다 특색이 아주 극명하게 나뉜다. 유럽은 무조건 영화제 위주다. 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이어야만 고려를 해주는 것이다. 미주는 DVD, VOD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한 요소가 있는 것, 장르 영화 위주로 세일즈를 진행한다. 아시아는 배우 위주인 경우가 많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과 합작도 많이 하고 있어 분위기가 좋다. 특히 작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이순재, 정영숙 배우가 나오는 <로망스>이 크게 히트해, 베트남에서 노인이 나오는 가족영화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제 정세에 따라 일의 방향이 시시각각 바뀔 것도 같다.

현재 한일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일본 바이어들은 여전히 한국 영화를 찾는다. 문제는 중국 시장이다. 우리나라와도, 미국과도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2년 넘게 완전히 문이 닫혀있고, 해외 영화에 대한 쿼터도 있고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통과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개봉이 힘들다. 마켓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1년 동안 바이어들이 참석하는 영화제가 베를린, 홍콩, 칸, 부산 등 6개 정도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마켓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중국 바이어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큰 금액으로 영화를 사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켓이 이들의 참여로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바이어들이 마켓에 참여하지 않으니 한산한 느낌이 들고, 돈이 안 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올해 아시아필름마켓도 마찬가지였고, 보고서가 몇 년째 똑같은 지경이다. “국제 정세 악화로...”로 시작하는. 종교나 역사적 배경도 고려 대상이 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수위가 높은 영화는 배급하기 힘들다. 회교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국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많이 변화했을 것 같다. 최근 반응은 어떠한지? 특히 올해는 여성 감독의 약진이 돋보였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김지운 등이 유럽에 작가주의 감독으로 소개되어 알려졌고, 리메이크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면서 한국 영화 콘텐츠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아 최고라는 인식이 대세다. 그런데 최근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신인 감독과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감독의 세 번째 작품까지 주목받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되, 계속 발전하면서 작품을 이어나가야 영화제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다. 한국에 좋은 여성 감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영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투자사든 제작사든 기회를 조금 더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다. 이연희 감독과도 일했고, 임순례 감독 작품도 계속 맡아오고 있는데 이처럼 세 작품 이상 꾸준히 선보이는 여성 감독이 많이 배출됐으면 한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다양하고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환경에 엠라인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플랫폼과 뉴미디어의 등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급의 형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와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를 수십, 수백 편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넷플릭스에 영화를 팔려면 무조건 통째로, 월드와이드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세일즈 시점도 중요하다. 새로 생기는 플랫폼에 RS(수익 배분, Revenue Share) 방식으로 독립영화 콘텐츠를 넣어보는 등 우리 작품을 계속 테스트해보고 있다. 미국에는 페이스북으로 미리 영화를 볼 사람을 모집해서 최소 인원이 넘게 모였을 때 극장을 부킹해 단관 하는 시스템도 생겼다. VR 작품에도 관심이 많다. ‘덱스터’ 작품도 몇 개 하고 있고, 선댄스영화제 같은 VR 섹션이 있는 영화제에도 가고, 특별관이 있는 극장과 연계해 배급하고 있다. 5년, 10년 후에는 또 어떤 디바이스가 나와서 이 업계를 바꿀지 모르는 일이다. 이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니까 모든 것을 로봇이 대신해주지 않는 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콘텐츠 형식이 조금 달라질 뿐 영화 유통 일은 계속 존재할 것 같다.

영화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영화 세일즈, 피칭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재밌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재밌는 로그라인을 뽑는 거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 참 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나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게서 매력을 발견하는 일, 끈기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만나는 사람도 워낙 많고, 때론 포기를 시켜야 할 때도 있다. 나는 사실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이라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편인데, 이 성격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10년 넘게 통련하는 비결이 거기 있을까.

직원들과 워낙 친해 맛있는 걸 그렇게 먹으러 다닌다. 출장 갔을 때도 그렇고. 돈은 월급을 줄 수 있는 정도면 되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편이다. 내가 또 매달리는 성격이 못 된다. 연차나 월차도 충분히 준다. 누구 하나 하루 쉬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으니까.(웃음) ‘행복하게 일하자’가 우리 목표다. 그 기운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런지 많이들 도와주셔서 지금껏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

배급 과정에서 많이 고생한 작품인데, 영화제에 못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적처럼 가게 됐을 때.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물다.(웃음) 상업적인 성공도 좋지만, 저예산 독립영화가 한 군데에라도 팔렸을 때가 훨씬 기쁘다. <동주>, <박열> 같은 영화를 일본에서 상영했을 때도 기억난다. 일본에 계시는 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회상영 식으로 학교 위주로 단체관람을 마련했다. 참 신기하고, 고맙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다른 이들의 작품을 배급하다 보면 제작이나 창작에 대한 욕심이 생길 것도 같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있나?

아직은 미치도록 만들고 싶은 작품이 없다. 내게 부탁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이다. 그런 게 생기면 인생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 유명한 배우에게 부탁하겠지. “내 인생 마지막 작품인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웃음)

이 일을 계속해나가는 동력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 무엇보다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동력인 것 같다. 두 번째는 엠라인 식구들이다. 직원들이랑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인지 회사에 나오는 게 즐겁다. 직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웃음)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장기적인 목표는 없다. 그냥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싶다. 직원들이 정년 65세를 채울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급적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춰줄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 20년 남았다.(웃음)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 가보면 굵게 차려 입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 세일즈사의 6, 70대 여성분들이다. 그게 되게 부럽더라. 비행기만 탈 수 있는 체력이면 늦게까지 일하면 좋겠다. ‘화인컷’ 서영주 대표, ‘쇼박스’의 안정원 이사,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세일즈 1세대로 지금까지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위 ‘언니’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들이 계속 계셔주었으면 참 든든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아직 우리는 체력이 남아 있으니 버티고 있는데, 다른 여성 영화인들도 많이들 함께 버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중에 우리가 원로 여성 영화인으로 다 같이 남을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인터뷰 / 유정미
사진 / 유수진

독립영화, 트랙에 올리다

인디스토리
이영인
&
시네마달
강봉수



1년 이상 2년 미만,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에서 해외배급을 맡은 두 사람. 때론 초심자라는 생각에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보다 자주 영화에, 일에 대한 애정을 실은 얘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두 사람. 이들이 소중히 전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해외에서 소개될 한국 독립영화의 면면을 기대하게 만든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 같다. 인디스토리 이영인 대리와 시네마달 강봉수 해외배급 담당자가 전해준, 독립영화 해외배급과 함께한 두 해제의 이야기.

아무래도 첫 질문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나’다.

봉수: 대학생 때 극장에서 <두개의 문>을 봤다. 용산참사에 관심을 갖고 동기들과 공부도 했는데, 영화를 통해 훨씬 더 넓은 시야로 몰랐던 이야기를 알 수 있었다. 영화적으로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시네마달에 지원할 때도 이곳이 어떤 영화를 다루는지 알고 있었고 그 영화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영인: 영화와 여행을 좋아하는 ‘요즘 사람’이라 영화 관련 일, 세계와 교류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평소 상업영화보다는 독립영화를 좋아하고 다양한 인디문화를 좋아하기도 했다. 인디스토리에 대한 기억이라면 대학교 때인가, 가족들과 같이 올면서 본 <위낭소리>가 먼저 떠오른다.(웃음) <지금 이대로그 좋아요>, <혜화,동>을 극장에서 재밌게 봤고, <한여름의 판타지아>, <최악의 하루>, <걷기왕> 등도 챙겨 봤다. 입사하고 보니 인디스토리 작품이 굉장히 많더라. 입사를 하고 생각해 보니 꿈과 취향이 모두 인디스토리와 잘 맞았던 것 같다.

인디스토리와 시네마달 해외배급의 출발점이 궁금하다.

영인: 인디스토리는 올해로 21주년이 되었는데, 초창기부터 해외배급을 했다. 대략 2000년도부터 한국영화가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올드보이>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화제작이다.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인디스토리도 자연스럽게 해외배급을 시작했다. 마켓 참가를 시작점으로 본다면 2000년도 단편 마켓에 작품 8편을 소개한 게 처음이다.

봉수: 시네마달도 초기부터 해외배급을 했다고 한다. 세계적 관심은 극영화가 먼저, 또 많이 받았지만 준수한 작품을 해외 영화제에 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해외배급을 시작했다.

시네마달엔 국내 극장개봉 준비팀이 있고 해외배급팀이 있는데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해외배급은 개봉 사이클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작품들이 영화제 상영을 하고 극장개봉을 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관객과 작품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외에 출품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관객을 만나고 그걸 동력으로 극장개봉까지 이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국내배급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해외배급부터 잘해야 하는 것 같다.

해외배급팀의 업무가 궁금하다.

영인: 일단 상시 해외 영화제 출품을 한다. 보통 영화가 완성되면 국내 개봉을 앞둔 시점에 배급사를 찾는다. 개봉 전에 해외 영화제 플랜을 짠다. 인디스토리에서 내부적으로 추진 공식 출품 영화제 목록을 공유하면서 개봉 전까지 어디 어디에 출품을 해 봐야겠다, 계획을 짜는 거다. 개봉 전에 적어도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아시아 프리미어는 풀렸으면 좋겠다 논의도 하고, 개봉이 많이 남은 영화면 칸, 베를린, 베니스 등 규모가 큰 영화제를 기다렸다 출품하기도 한다. 영화 장르나 성격에 따라 어울리는 영화제에 전략적으로 작품을 소개하려고도 한다. 그게 가장

큰 업무다. 직접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영화제 상영 이력이 개봉에도 영향을 준다. 꼭 해외 영화제를 많이 갔다고 영화가 잘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창구가 적은 독립영화에는 큰 힘이 된다. 마켓에도 참가한다. 인디스토리는 상반기에 매년 끌레르몽페랑 단편마켓에 간다. 장편은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마켓인 홍콩필름마켓이 중요하다. 칸 영화제는 참가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최근 상업영화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서다. 하반기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아시아필름마켓에 참여하는 게 주요한 일정이다.

특별히 일터와, 또는 스스로와 결이 맞다 느낀 작품이 있다.

영인: 다 맞다!(웃음) 떠올려 보자면, 인디스토리와 꾸준히 함께한 감독들이 있다. 김종관 감독, 장건재 감독. 최근 <윤희에게>를 개봉한 임대형 감독과도 전작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까지 같이 했다. 물론 이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관객이 알아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발굴했다는 뿌듯함이 들기도 해서 기억이 난다. 결이 맞기에 오래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봉수: 시네마달은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작품을 많이 다루고, 관객에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나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5월에 개봉했던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 해외배급을 하며 많이 배웠다. 해외배급에 참여하고 처음 초청 소식을 받은 작품인데, 첫 해외 영화제에 간 이후 입소문이 나서 꾸준히 초청되며 최근까지도 상영이 이뤄졌다. 해외 영화제 한 군데에만 초청되어도 영화가 밖으로 뻗어나갈 기회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도 국제영화제가 있지만, 한국에 오지 못한 관객들이 해외 다른 영화제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자국 산업 관계자끼리 교류하면서 상영요청까지 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일종의 궤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 영화를 통해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한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을까.

영인: 입사를 하고 가장 본격적으로 전략부터 함께 짠 작품이 정승오 감독의 <이장>이다. 제작도 인디스토리에서 해서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본 작품이기도 하다. ‘이장’이라는 주제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아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이 월드 프리미어였고,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했다. 결국 뉴욕아시아영화제에서 인터내셔널 프리미어가 풀렸다. 전세계 아시아영화제 중에서 가장 관객 참여가 활발하고 리뷰가 많이 업데이트되는 영화제다. 프로그래머의 한국영화 이해도도 높고 아시아영화 전문가가 많이 가는 영화제기도 하다. 감독에게 이 영화제의 장점을 어필하고 출품을 해서 잘 상영했다. 그 뒤로 바르샤바국제영화제에서 유럽 프리미어를 했다. 동구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영화제다. 감독상과 넷팩상도 수상해 의미가 깊다. 아시아 프리미어는 대만 금마장영화제에서

풀렸다. 특별한 건 감독이 가능한 한 영화제에 직접 참석했다는 것이다. 감독에겐 해외 영화제에 가서 해외 관객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내 영화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기도 할 테고, 현실적으로 필요 그래피가 풍성해지기도 하니깐. 그래서 감독이 영화제에 초청받아 직접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다. 최근 파리한국영화제에선 포트레이트 섹션에서 정승오 감독의 장단편을 모아 소개했는데, 공민정·장리우 배우가 함께 파리에 가서 관객과 만나고 현지 인터뷰도 했다. 단순히 영화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감독이 직접 교류를 하고 새로운 영감을 받아오는 걸 보는 게 좋다. 해외영화제라고 하면 멀게 느껴지는데 감독이 그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때 보람차다.

봉수: <이장>이 잘되어서 기분 좋다. 올해 9월 개봉한 <동물, 원>이란 작품이 생각한다. 영화제에서 보고 픽업한 작품인데, 시네마달이 배급을 맡기 전 제작진이 캐나다 핫독스영화제에 출품을 했고 계약 후 초청이 되어 그곳에서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를 하게 됐다. 상영 현장 사진을 보는데, 영화가 끝나고 프로그래머가 눈이 빨개져서 GV를 하러 나온 거다. 본인이 선정한 영화인데도 극장에서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온 거다. 내가 출품해서 가게 된 영화제는 아니지만 그 장면을 보고 뿌듯했다. 다른 곳에서도 핫독스 상영을 계기로 연락이 왔고, 올해 서울독립영화제2019에서 집행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도 떠오른다. 시네마달에서 제작한 작품인데 부산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했고 그걸 계기로 이번에 로테르담영화제에 초청됐다.

해외배급을 하면서 생긴 고민이 있을지도 궁금하다.

봉수: 영어자막에 좀 민감해졌다. 출품을 많이 하니깐 거절 메일도 많이 받는다. '이건 될 것 같았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좋은 영화데' 고민하면서 원인을 생각해 봤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소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영화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맥락을 몰라서일 수도 있을 거다. 근데 그중 하나가 이 영화의 한국어 대사가 영어로 충분히 번역이 됐을까? 였다. 아무리 복잡하고 지역 특색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번역이 잘 되면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생충>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길 했고. 해외배급을 하면서 대사가 잘 옮겨졌는지, 외국 관객의 관점에서도 이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신경 쓰게 됐다.

영인: 자막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에서 오는 차이가 정말 크다. 그리고 사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한 가지 언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그걸 다 파악해야 전문가가 되는 걸까?(웃음)

봉수: 독립다큐멘터리는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액티비즘 다큐 자체는 해외에도 있지만, 한국 액티비즘 다큐를 해외배급할 때 당사자가 직면한 상황이나 절박한 현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려졌나 생각해 보면 참 어렵다. 현장에 집중해 만든 작품은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에겐 더 풍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해당 소재에 무지한 관객에게는 상대적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 되니까.

영인: '로컬'한 작품도 보편성을 떨 수 있는데, 참 쉽지가 않다. 특히 독립영화는 작은 이야기, 디테일, 소소함 등에 집중하는 작품도 많은데 해외에선 그런 감수성이랄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봉수: 제작단계에서 논의가 되면 좋을 텐데, 해외배급은 특히나 작품이 완성되고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가서 뭘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배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속제 같다.

영인: 상업영화는 해외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한다.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인 거다. 하지만 때론 그 과정에서 영화를 단순한 카테고리에 집어넣는 일이 생긴다. 나는 영화가 해외에서 쉽게 읽히기 위해 '로컬함'이 가진 매력을 버리면서까지 틀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다. 사실 '이 영화 장르는 로맨스입니다, 유명한 배우 누구누구가 나오니까' 하면 얼마나 간단한가. 사는 사람에게나 파는 사람에게나 그게 쉬울 거다.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독립영화가 가진 매력을 잃게 되지 않나 싶다. 어렵다.

<이장>



어떤 작품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다.

영인: 이번 기회에 인디스토리 해외배급사를 공부했는데 새삼스레 정말 작품이 많구나 싶었다. 그런데 막상 인디스토리가 해외배급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다. 그래서 소개하려고 적어와 봤다.(웃음) 아까 말했듯 인디스토리는 플레르몽페랑에서 단편을 소개하면서 해외배급을 시작했다. 이석훈 감독의 <For the Peace of Mankind>와 권종관 감독의 <1979년 10월 28일 일요일 맑음>이 포함됐다. 이후 꾸준히 작품세계를 확장한 분들인데 이들도 처음부터 상업 장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인디스토리가 그들이 계속 영화를 만들고 소통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 단편은 TV채널과 VOD 배급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단편 전문 TV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의 까날플러스CANAL+나 아르떼Arte, 영국의 채널 포Channel 4 등이 대표적이다. 인디스토리에서 그곳들에 단편을 꾸준히 배급해 왔다.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살인당한 여고생 아직 대학로에 있다>는 일본에서 극장개봉도 했고, 김동원 감독의 <송환>, 연상호 감독의 <돼지의 왕> 등도 여러 지역에 소개됐다.

봉수: 시네마달은 해외배급작 중 이길보라 감독의 <반짝이는 박수소리>가 4년 전 일본에서 극장개봉을 했다. 사실 다큐멘터리는 극장개봉보단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아카이브용으로 가져가거나 비극장상영권을 구매해서 공동체상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북미지역 대학에 교육 및 연구목적 사용권을 중점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다. 또 다큐멘터리 VOD를 큐레이션해서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많아졌다. 그 플랫폼들이 자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큐를 좋아하고 찾는 관객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새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 보인다.

시네마달에서 배급하는 다큐멘터리들은 유럽보다는 아시아에서 소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 같다. 한국과 문화적으로 밀접하기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찍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유럽이나 미주로 가면 북한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이상 큰 관심이 없다. 배급작 중 <광장>이라는 옴니버스 다큐가 있다. 촛불집회에 관한 단편 일곱 편을 엮은 작품이다. 홍콩과 대만에서 꾸준히 상영 요청이 들어온다. 판권을 계약하는 세일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 상영요청이 있다는 건 이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심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시아가 여전히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문화적으로, 또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나라에 해외배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인상을 받았다.

영인: 극영화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소개된다. 아시아 지역에선 로맨스, 특히 틴에이지 로맨스를 선호한다. 최근엔 박주영 감독의 <굿바이 씬머>를 많이 좋아해주셨다. 북미 지역은 한국 인디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유럽 쪽은 작품성이 있거나 장르색이 강한 영화를 아시아에 기대하는 편인 것 같다.

앞으로 해외배급 담당으로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영인: 일을 하면서 ‘교류라고는 하지만 실은 일방향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해외에서 이해할 여지가 부족한데 내가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제작 욕심이 생겼다. 인디스토리는 제작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공동제작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아직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공동제작을 통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외와 교류하며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

봉수: 한 배급사나 세일즈사가 브랜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은데,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든다. 브랜드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으면 시네마달에 연락해야 한다’처럼 공유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세일즈 측면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도 더 구축해야 할 것 같아 SNS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 작품에 관심이 있다면 이리이러한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테니까. 중간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급작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 등도 고민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어프로치해서 수입한 작품을 개봉했다. <주전장>이다. 결과가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해외작 개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선례가 생긴 거다.

해외배급 담당자로서 갖는 마음,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려준다면.

영인: 사실 이 일에 나름의 사명감을 느낀다. 만약 인디스토리가 없었다면 현재 국내 영화 배급 생태계가 어땠을까 생각하곤 한다. 시네마달이 없었더라면, 가정해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라면 지금만큼 다양한 영화가 배급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감독이 다음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창작을 꿈꾸는 사람이 희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관객도 극장에서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없었을 거다. 인디스토리가 작년에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때 내세운 구호가 ‘버티는 것이 힘이다’였다. 해외 배급에도 해당되는 말 같다. 해외에 꾸준히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화가 해외배급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해외에서도 한국 독립영화가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될 거고,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친숙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멋진 작품은 정말 많지만, ‘이 작품은 인디스토리가 배급해야 한다!’는 확신이 드는 작품과 성장하는 경험이 특별하다. 인디스토리에겐 힘을 얻어 종류도 목소리도 다양한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봉수: 처음엔 해외배급을 하면 출장을 많이 갈 줄 알았다. 아니더러!(웃음) 아무래도 독립영화판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상황이 많고, 해외배급 파트 구성원이 적다 보니 여력이 충분치 않기도 하다. 해외를 돌아다니는 대신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드는 시간이 많다.(웃음) 어쩌면 해외배급이 참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분야일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됐다. 그게 싫지는 않다. 다만 독립영화 해외배급 실정이 녹록치 않은 않기에 예상한 것과 다른 환경을 마주할 수 있단 거다.

인터뷰 / 김승요

사진 / 유수진



무지개는 수많은 빛의 스펙트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



레인보우팩토리는 퀴어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수입하고, 배급한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를 9회째 치렀고, 전세계의 프라이드영화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돕고 도우며 작품을 소개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소수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을 것이라고 한다. 무지개가 일곱 개 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셀 수 없이 많은 빛깔의 스펙트럼인 것처럼, 레인보우팩토리가 표현할 세상도 점차 더 무궁무진해질 것이다.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 대표를 만나 그 다채로운 세상을 상상해 보았다.

레인보우팩토리의 시작이 궁금하다.

나는 영화사 청년필름을 기반으로 영화를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지금과 달리 제작사 안에 홍보팀과 배급팀이 있어서 제작사가 직접 홍보와 배급을 맡는 경우가 꽤 많았다. 청년필름도 그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체제작, 배급, 홍보를 배우게 됐다. 수입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퀴어영화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퀴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돈도 안 돌아왔다. 청년필름에서 만든 <후회하지 않아> 제작비가 1억이었다. 심지어 필름으로 찍은 건데, 지금 같아선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저예산이다. 그런 제작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성과를 얻지 못하면 투자자도 손해를 보지만 제작자 입장에서 정말 잔고 0원이 되는 거다. 특히 우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했기에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사실 투자를 받기 비교적 쉬운 종류의 영화도 있다. 톤앤매너가 말랑말랑하면서도 과거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실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쉽고 관객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긴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영화’를 하고 싶었다. 그러다 투자금을 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고 발품을 파는 대신 이미 만들어진, 작품성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수입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2011년부터 수입을 하게 됐다. 원래는 한두 편만 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영화가 너무 많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9년째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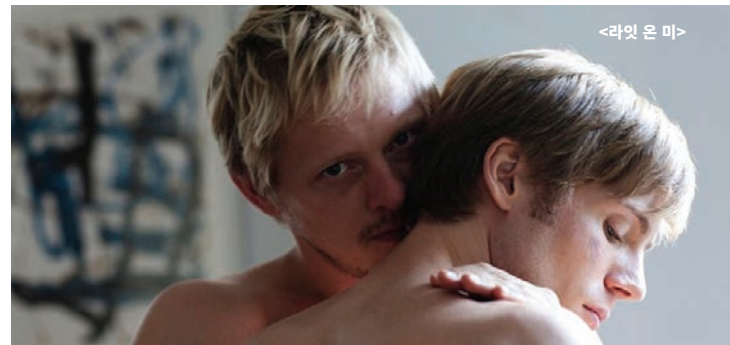
레인보우팩토리는 제작, 수입, 배급을 모두 한다.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며 일을 수행하나.

사실 우리도 재작년부터는 배급사를 끼고 일을 하게 됐다. 배급에는 기본적으로 관계 맺기가 중요한데, 1년 개봉작 수가 5편 이내인 작은 회사가 협력사와 관계도 맺고,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작품과 우직하게 밀어붙일 작품으로 라인업을 조화롭게 꾸리기까지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배급사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홍보 역시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대행사가 세분화해 일을 하다 보니 직접 보도자료를 쓰는 일이 줄었다. 시장이 대행사 구조로 완전히 바뀐 것 같다. 하지만 배급사나 홍보사를 못 찾았거나 이야기의 내용 또는 장르가 기존 배급사나 홍보사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일 때는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한다. 레인보우팩토리를 시작했을 때 목표가 명확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퀴어영화는 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나 커밍아웃, 가족과의 갈등, 직장 내 차별 등을 다뤘다. 그로 인해서 커뮤니티를 떠나거나 자살을 하거나, 유토피아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결말이 많았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다. 그렇기에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난 영화를 꼭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2012년 베를린영화제 테디베어상을 받은 아이라 잭슨 감독의 <라잇 온 미>라는 영화를 수입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선 퀴어와 기독교와 대립한다는 인상이 있는데 사실 기독교 정신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이라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여왔다. 또 퀴어영화를 B급 문화로 여기는 선입견을 탈피하는, 영화적으로 극강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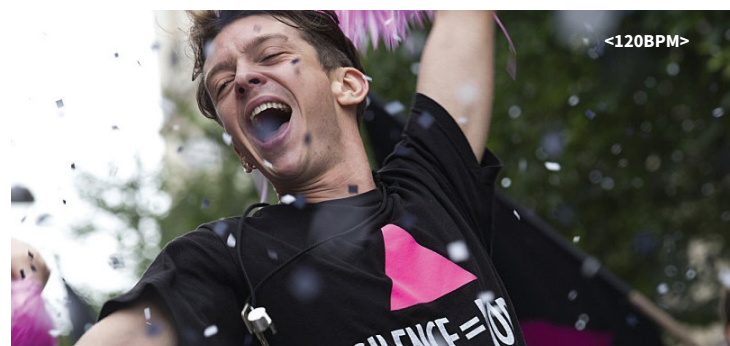
<호수의 이방인>을 수입했다. 카이에 뒤 시네마에서 그 해의 영화로 꼽은 영화다. 동성결혼 이야기를 담은 <로렐>, HIV를 정면으로 다룬 <120BPM>도 소개했다. 직접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수입한 작품으로 많이 보여드리려 했다. 이젠 해외 작품을 통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애긴 웬만큼 하지 않았나 싶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도 일하고 있다 보니 다른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영화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작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미 기획 단계인 아이템이 몇 가지 있다. 레인보우팩토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 여성, 동물, 이주노동자... 물론 그 이야기 속에 성소수자 캐릭터가 반드시 들어가겠지. 사실 이렇게 일하면 돈은 안 된다.(웃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다행인 건 여태 제작하거나 수입한 영화들을 관객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딱히 손해를 본 적도 없다는 거다.

아시안, 나아가 한국의 퀴어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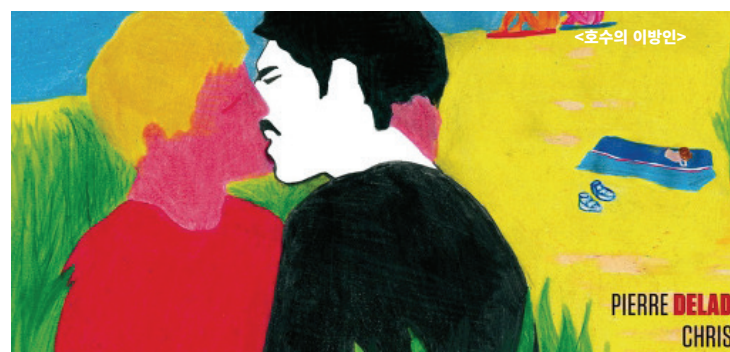
맞다. 어쨌거나 북미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퀴어영화는 주제의식이나 고민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일면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소재 중심으로 수입을 해왔다면 이젠 우리나라 퀴어를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라잇 온 미>



<120BPM>



<호수의 이방인>

레인보우팩토리의 해외배급 형태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레인보우팩토리에서 제작한 영화 중 장편 대부분은 화인컷이나 엠라인과 함께 해외배급을 했다. 이유가 있다. 일단 해외배급은 기본적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셀러의 입장에서선 부스도 차려야 하는데, 잘 꾸며진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켓 부스도 잘 갖춰진 곳을 사람들이 찾곤 하기에 디스플레이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리고 영화제는 암묵적으로 레벨이라는 게 있고, 높은 레벨의 영화제에 한 번 가면 이후엔 자연스럽게 다른 영화제가 따라온다. 그런 부분은 해외배급사가 나보다 훨씬 잘 파악하고 있다. 나는 프라이드영화제 중 중요한 곳인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마인 영화제나 토리노LGBT영화제 등에 직접 스크리너를 보내고 출품을 한다. 재밌는 건 나도 그렇지만 프라이드 영화제를 하는 이들이 이미 각국 바이어를 다 알고 있다는 거다. 영화가 좋으면 바이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다. 일종의 점조직처럼 일을 하는 거다. 정리하자면 장편 해외배급은 기존의 회사들에 맡기고, 대신 개인적으로 아는 바이어나 중요한 회사 리스트를 이용해 커버를 한다. 해외배급사가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정말 정당한 처사라고 본다. 해외배급이 워낙 수고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나 혼자선 절대 다 할 수 없다. 단편은 직접 배급하는 일이 더 잦다. 할 일은 많은데 수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급되지 못하는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기도 한다.

VOD를 통한 배급도 활발한 편인가.

퀴어영화선에 가까울라라GagaOOLala라는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 있다. 주로 중국대륙을 제외한 화외권 국가와 화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그 인구만 해도 상당하거든.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도 화교가 아주 많지 않다. 우리는 여기에 단편을 판매한다. 올해도 서른 편 가까이 서비스했다. 단편 같은 경우는 수익배분구조로 계약하지 않고 단매로 판매한다. 몇 년에 얼마 하는 식이다. 한편 예전엔 해외배급을 할 때 나라별로 영화를 판매했다면 지금은 플랫폼별로 판매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잘못 팔면 얼마 안 받고 너무 많은 국가의 판권을 주게 되면서 도리어 다른 나라에는 못 팔게 되는. 그래서 VOD 플랫폼에 판매할 때는 독점 대신 이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국가에 못 팔게 되니까. 비독점판권으로 계약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왓챠플레이 같은 곳에서도 단편을 서비스하니까 그런 곳에서도 서비스를 해보는 게 좋은 생각 아닌가 한다. 시장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신상이 아니지 않다. 그래서 신상일 때 빨리빨리 파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배급사도 그렇지만 영화를 맡긴 제작사, PD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해 수천 편의 영화가 나오는데 그중 누군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다. 말이 안 되는 제안은 거절해야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 작품을 알리기 위해 활발히 세일즈를 하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외배급사가 모든 영화제에 출품하길 바라서도 안 된다고 본다. 영화제들마다 출품료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도 하고, 사실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는

영화제에 가게 되면 그 뒤론 그 등급 이상의 영화제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품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찢러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해외배급사를 믿고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퀴어영화를 중심으로 해외배급을 하고 있다. 한국 퀴어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출품하는 영화제가 있을지도 궁금하다.

국제영화제 중에선 베를린국제영화제가 아주 중요하다. 퀴어영화를 중심으로 다루는 테디베어 섹션이 거의 30년이 되어간다. 나도 2013년도 심사위원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 칸은 사실 워낙 작품이 많기도 하고 상업적인 코드도 강해져서 상을 받기 힘들기도 하고 주목받기도 어렵지 않나 싶다. 북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프레임라인, 로스앤젤레스의 아웃페스트 두 영화제가 중요하고, 유럽에서는 영국 영화진흥위원회(BFI)에서 운영하는 런던국제프라이드영화제 그리고 토리노LGBT영화제가 주요 영화제다. 아시아 쪽에서는 원래 홍콩레즈비언 엔게이팅영화제가 제일 중요하다. 올해 30주년을 맞았는데, 홍콩민주화운동이 한창이라 주말에는 행사를 치르기가 좀 어려웠다. 일본은 퀴어영화선이 쇠퇴한지 조금 오래되어서, 요즘은 대만국제퀴어영화제나 우리 영화제가 아시아의 중요 프라이드영화제가 되고 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호주 시드니에서 마디그라스국제프라이드영화제를 하고, 중동은 종교 문제로 영화제가 잘 없지만 이스라엘 텔아비브국제LGBT영화제가 꾸준히 개최 중이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엔 동성애 혐오국가가 많아서 프라이드영화제가 활발히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대표적인 프라이드영화제가 있고, 이곳들에서 상영이 되면 잘 풀린 것으로 본다. 정말 좋은 건, 이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만난다는 거다. 서로의 영화제를 오고가고, 행사가 열리면 품앗이로 참가도 한다. 우리는 일단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베를린영화제 유러피안필름마켓에서 무조건 다 모인다. 거기서 큰 파티도 참가하고 미팅도 하고, 이런저런 소식도 공유한다. 여성영화 쪽도 그렇지 않을까 싶는데, 성소수자 영화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끼리는 끈끈함이 있다. 서로 견주거나 따돌리는 일이 없고 잘 도와준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게 결국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해외배급, 그리고 해외작품 수입에 어려운 점이나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선 언어장벽이 있다. 그래도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만큼 불편해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영어를 잘 아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관객분들이 자막에 의견을 주는 경우도 늘어났다. 제작 국가를 보고 따라오는 이미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 평소 국가브랜드 같은 데 큰 관심이 없는데, 일을 하면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 영화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중국 영화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필리핀, 태국 영화 했을 때 떠오르는 즉각적 이미지란 게 있지 않나. 어떤 면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선 관람 전에 이미 고정관념이 있는 거다.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영화를 보여줄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도 영화인데 발리우드식 춤과 노래가 여러 컷 나오지 않으면 관객이 어색해질 수 있다. 북유럽에 대한 환상도 일례로 들 수 있다. 북유럽은 사실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금방금방 퍼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대도시가 진보적일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런데 워낙 국내에서 북유럽 이미지가 진보적이고 유토피아처럼 묘사된 면이 있어서, 그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은 영화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지만 관객들에겐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한다. 레인보우팩토리에서 <툰 오브 핀란드>란 영화를 배급했다. 핀란드에서 무민과 더불어 가장 유명하다는 작가 '툰'에 대한 영화다. 작품을 보고 핀란드가 불과 몇 십 년 전에 저렇게 동성애 차별적이었다니, 하며 놀라는 관객이 많았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술혼을 펼치는 모습을 보길 기대했다가 경찰에 쫓기고, 도망 다니고, 핍박받는 게이 작가를 보니까.(웃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도 해외에 더 다양한 이미지로 비춰져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독립영화 아시아 투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웃음)

어려운 점과 보람찬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려운 점은, 돈이 안 된다는 거?(웃음) 원래 전자과를 나와서, 대학 동기나 선후배 중 다수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 친구들이 너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버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다행히 난 아이가 없어서 교육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가뭄돈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역으로 아이까지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도 한다. 시장 구조상 내가 쓰는 시간과 노동의 가치만큼 돈을 버는 게 너무 어렵다. 그게 참 어렵고 씁쓸한 지점이다. 정말 능력도 좋고 일을 사랑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그만두는 분들이 있다. 정말 속상하다. 보람찬 때는, 일단 관객을 만날 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나. 같은 내용이어도 다짜고짜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얘기를 하면 이해받기 어렵겠지만, 영화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관객에게 즉각적으로 이해를 구할 수가 있다. 상영관을 나왔을 때 관객의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요즘은 언론배급시사회를 하지 않는 영화도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한다. 기자나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이 일하고 있거나 일했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볼 때도 보람차다.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년이 없다는 거다.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던 거. 자기가 하고픈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역사를 좋아하기에 퀴어 시대물을 만들어보고 싶다. 퀴어영화 외의 작품도 기획개발 중이다. 앞서 말했듯 여성, 동물, 난민, 장애인, 이주민 등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조선족 이야기도 꼭 하고 싶다. 사람들이 이들을 그토록 차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같은 소수자기에 잘못된 편견에 시달리는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다. 성소수자 중에도 당연히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범죄자도 있다. 조선족도 마찬가지로 텐데 나쁜 점이 부각되고 언론에 노출된다. 그밖에도 이런저런 하고픈 이야기가 많다. 청년 필름이란 가족이 있기에 제작 여건이 된다는 게 행운이지 싶다. 감사하게도 프라이드영화제가 잘 되고 있어서 하반기엔 영화제 준비만으로도 바쁘다. 얼른 영화를 만들어야 할 텐데!(웃음)

인터뷰 / 김송요
사진 / 이지윤



SIFF NOW

SIFFxNAFC 인디피크닉 베이징부터 뉴 아시안 필름메이커스 콜렉티브 워크샵까지



지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독립영화제2018 상영작과 상영감독 4인이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어느덧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서울독립영화제의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객과의 대화뿐 아니라 워크샵과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극장 밖에서의 교류가 더해짐으로써 색다른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서울독립영화제와 뉴 아시안 필름메이커스 콜렉티브(New Asian Filmmakers Collective, 이하 NAFC)가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길모퉁이가게>의 이숙경 감독, <나는 사자다>의 송주원 감독,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의 이나연 감독과 <작은빛>의 조민재 감독이 직접 참여하고, 서울독립영화제 김영우 해외프로그램과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선택 심사위원이자 NAFC와 지속적 교류를 이어온 이수정 감독이 동행하여 한층 다채롭게 완성됐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쇼케이스는 베이징 798예술구에 있는 미술관 UCCA에서 열렸다. 첫날은 <한낮의 피크닉><춤추는 개구리><풍정각>과 <작은빛>이, 이튿날 <인사3팀의 캡슐커피><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와 <길모퉁이가게>가 관객을 맞았다.

이틀 동안의 상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틀 동안의 워크샵이 이어졌다. 워크샵이 열린 송莊宋庄은 베이징 외곽의,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798예술구에 모였던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 안팎의 사정으로 이주해온 곳이자 베이징의 위성도시 건설에 의해 다시금 불안에 휩싸이게 된 지역이라곤 하지만,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공생하며 커뮤니티를 이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곳이다. NAFC(新亚洲影志)의 스튜디오도 이곳 송莊에 있다.

중국대륙에선 모든 영화가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개봉 및 영화제 상영이 가능하고, 공적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때문에 거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에서건 외부 개입으로부터의 독립이란 의미에서건 '독립영화'란 개념이 중국에서 성립하는 데엔 어려움이 따른다. NAFC를 만든 이들과 이들의 워크샵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모두 이러한 제작 환경 아래 시스템 바깥에서, 저예산으로, 창의적인 이야기감을 갖고 영화를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었다.

첫 워크샵은 조민재 감독이 맡았다. 조민재 감독은 자신의 첫 장편영화 <작은빛>의 기획부터 상영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창작 경험이 없거나 갓 시작하는 단계인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했다.

주인공이 역경을 거쳐 성장하는 영웅서사의 구조를 전복하고, 가족을 경유하여 스스로를 향해 나아가는 인물의 여정을 그리고자 마음먹었다는 시나리오의 시나리오의 출발점에서부터 현장에서 건설노동을 하면서 종잡돈을 모아 마련한 예산에 이르기까지 가감 없이 공유한 조민재 감독에게 참가자 모두 큰 호응을 보냈다. '우리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며 조민재 감독을 소개하고 생업과 영화를 병행하는 그의 작업 방식에 커다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스레 이들이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이자 정부 기금이 전무한 환경에서 독립영화 만들기를 하는 데 느끼는 감정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이나연 감독은 가족을 다룬 세 편의 단편을 중심으로 각 영화가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지점과 각각의 다른 디테일을 풀어놓았다. <쓰리름>을 만들며 배우 개개인이 작품의 공동 창작자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역할을 다시금 깨달았고, 이들과 작품 사이를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연기를 통한 연습이자, 놀이이자, 워밍업이자, 브레인스토밍이자, 친해지기 과정을 거침으로써 배우들을 단순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는 이나연 감독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더불어 이나연 감독은 영화 현장에서 여성 창작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성평등 수칙을 공유했다.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취지에 맞지 않는 농담을 하는 목소리와 크게 공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돌아왔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센 여자'라는 개념 자체를 여성혐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일면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워크샵은 송주원 감독과 이숙경 감독이 각각 진행했다. 송주원 감독은 <풍정, 각> 시리즈를 중심으로 장소특정적인 댄스필름을 만들기과 개별 작품 속 이야기를 다뤘다. 사라져가는 풍경, 스쳐 지나간 했던 골목과 건물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고 세심하게 소개하는 송주원 감독의 이야기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베이징 역시 후통이라고 불리는 골목 문화가 남아 있고,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한 변화가 현재진행형인 도시이다 보니 참가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다. 동시에 특유의 미감으로 조화롭게 에너지를 운용하는 송주원 감독의 영화들을 직접 보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화적 감흥 역시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상영감독 소감

<나는 사자다> 송주원 감독

우선 영화가 상영되어 기뻛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객이 상영회를 찾아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어서 뜻 깊었다. 워크숍을 할 때는 통역을 거쳐야 해서 의미가 잘 전달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원활히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참가자들의 촬영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려는 몸짓이 정말 아름다웠다. 주최측과 참가자 모두 에너지가 좋았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매일 일정을 소화할 줄은 몰랐지만(웃음) 덕분에 알찬 시간을 보냈다. 작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을 다룰지 역할을 분담하여 워크숍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다음 기회가 분명 있겠지!

<길모퉁이가게> 이숙경 감독

워크숍 참가자들의 작품 구상을 들은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개성 있고 세밀하게 짜인, 매력적인 이야기가 참 많았다. 조금 더 토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시간이 있었다면 좋았으리란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함께 온 감독님들과의 시간이 좋았다. 동시대 작업자로서 계속 영화제 등 여러 곳에서 보기는 하지만 5일이나 함께 보내는 건 흔치 않은 경험 아닌가.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워크숍을 한 것만 같다. 5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점차 어딘가에 '선생님' 자격으로 갈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니라 동료로서, 작업자로서 오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이나연 감독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국의 감독들이 어떻게 독립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지 알 수 있었다.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 중국 감독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생각했다. 또 워크숍에서 한국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서울독립영화제 스태프들에게도 감사하다.

<작은빛> 조민재 감독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부분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각자의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교류하고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동안 마음에 맞는 영화를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가치관이 비슷한 동료 창작자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특히나 중국 감독들의 영화를 본 것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타 문화권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 못 하겠지만, 영화를 보는 순간 작품 자체에 매료되었다. 세상에는 좋은 영화가 정말 많고 좋은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직접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영화들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건지, 아쉽기도 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서로의 영화를 공유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이숙경 감독은 기존에 쌓아온 커리어를 뒤로하고 40대에 영화학교에 들어가 영화를 만들게 된 이야기부터, 여성 동료들과 함께함으로써 계속할 힘을 얻었던 일까지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실제로 접한 것이 명령과 복종의 상하관계가 당연시되는 현장이었다는 것,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성 창작자들의 연대는 필수적인 것임을 역설하면서 <어떤 개인날>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의식이 강하고, 이혼 경력 이 있고, 모성애를 이유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여성' 주인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주위의 분위기에 대해 전한 것 또한 큰 인상을 남겼다. 지금 역시도 미디어가 재생산하는 중년 여성의 이미지는 극히 한정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도, <어떤 개인날>의 주인공을 연기한 김도영 배우가 <82년생 김지영>의 김도영 감독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참가자들은 이숙경 감독이 소개한 두번째 영화 만들기 워크숍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운 동료로서 웃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지 헤아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사진 / 김송요



미니 인터뷰 — 귀샤오동郭晓东 | NAFC 발기인

NAFC에 대해 듣고 싶다.

중국에는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없다. 또 영화학교에 다닌다거나 프로덕션에 소속되는 등의 제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개인 창작자는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고민에 부딪치게 된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국가의 영화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프로듀서로서, 편집자로서 해외 영화제에 방문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창작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베트남의 쓰엉민퀴 감독도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후 그의 영화 <트리 하우스> 프로듀서가 됐다.

아시아 독립영화를 보다 보면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르나 제작 방식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그 작품들을 베이징에서 소개하고 싶어 상영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NAFC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초대-방문의 일방적인 형식이 아닌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10국가 이상, 30명 이상의 감독이 방문했다. 처음에는 개인들이 모인 것이었지만 어느덧 자연발생적 컬렉티브가 되었다. 처음엔 2-3인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10인으로 늘어났다. 일상을 공유하는 것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라 역량이 더 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차세대 창작자이자 동료 영화인들을 위해 교육 방면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평적인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메인시스템 바깥에 있는 이들을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려 한다.

아시아 영화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인상적이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상영했을 때 유럽 영화인들이 놀라워했다. 이런 네트워킹에 대해 전혀 몰랐으니 그럴 만했다. 사실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영화제가 유럽에 많다 보니 유럽 영화제에서 상영했는지, 유럽에서 인지도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유럽에서 소개되거나 알려지는 것과 무관하게 아시아 국가끼리 공유 가능한 영화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해서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떻게 한국 독립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나.

2016년 <깨끗한 물 속의 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했다. 그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원영 감독의 <검은 여름>을 봤다. 아직도 영화가 생생하게 생각한다. 중국에서 보기 힘든 작품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이수정 감독의 <시 읽는 시간>을 봤다. 영어 설명이 없이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상영 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금세 친구가 됐다. 교육, 철학 등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다. 편집 등 부분에서 코멘트 하기도 한다. 위대한 영화 만들고자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친구로서 함께 일하려 한다. 언어 장벽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작품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산업 측면에서의 공동제작 개념이 아니라, 동료 사이 협동의 의미로서 하는 활동이다. 서로가 하는 일을 봐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거다. 중국 영화관에선 유명 영화만 볼 수 있기 때문에, UCCA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독립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

이번 상영작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게 됐나.

여러 작품을 관람하고 나서 상영작을 선정했다. 모든 영화의 예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나지만 다양한 가치를 갖는 영화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 젊은 작가와 연륜 있는 감독을 고루 초청하고 싶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영작 구성을 했다.

지금 중국의 영화 씬은 법과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번에 상영한 <작은빛> 같은 영화는 이제 중국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작은빛>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 영화의 진실한 면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생각했다. 사드 이후 중국에선 한국 미디어를 오프라인에서 접할 기회가 없어졌다. 물론 사람들은 한국 작품을 보고 싶어한다. 다행히 우리가 진행하는 상영회에선 한국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 관객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윤재호 감독의 <마담B>를 상영했을 땐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상영관까지 마구 뛰어갔다. 당시 상영 스케줄이 한 번 바뀌어서 일정 변경 공지를 보지 못한 분들이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아쉬워하며 거듭 추가상영을 문의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독립영화가 가진 힘을 느끼기도 하고 한국의 창작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도 상기한다.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대만영상자료원(TFI), 프랑스문화원, 남트3대륙영화제, 일본국제교류기금, 조지아 국립아카이브 등과 협업 중이거나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싱가포르 아시안필름아카이브와도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다루고 양푸동처럼 작품이 너무 좋지만 영화계에서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음. 12월에 젊은 영화인들과 서울독립영화제를 찾은 예정이다. 어떻게 한국 독립영화인들이 작업하는지 궁금하다. 내년에는 해외 워크숍을 또 해보려 생각중이다. 국가를 넘나드는 협업을 염두에 두고 워크숍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국내에선 존 토레스를 필두로 하여 필리핀 실험영화 30년사를 회고하는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영을 하는 UCCA의 정체성이 미술관이기에 극장 스크린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영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존 토레스 역시 컬렉티브를 만들고 젊은 영화인과 힘을 모으려고 하는 작가란 점도 중시했다. 중국 영화역사에 관한 전시도 생각하고 있다. VHS부터 시작해서 공영방송인 CCTV 채널, 불법 DVD 유통 같은 중국의 특이한 문화 내지는 현상을 살펴보려 생각 중이다. 30여 년간의 사회적 교류를 되짚어보며 대중매체가 예술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큰 프로젝트라 고민이 많다.

덧붙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중국 다른 지역으로도 교류를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 단체의 거점은 베이징인데 때로는 특정 지역, 그것도 수도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게 한계를 만들지 않나 싶기도 하다. 계속 고민을 이어가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고 싶다.



감독 안선경 / 극 / 118분 / 2016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비전- 감독상 (안선경)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본선경쟁 부문

삶이 되는 영화, 영화가 되는 삶

극장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본다. 불이 꺼지면 까맣던 스크린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영화로 가득 찬다. 눈 앞에 펼쳐지는 영화는 환상이면서도 분명한 현실이다. 환상과 현실이 혼재하는 영화에 꿈꾸듯 매료되었다가, 불이 켜지면 극장을 나선다. 그리곤 영화를 빚어낸 이들의 일상에 대해 생각한다.

영화는 다분히 사적이다. 장르를 불문하고 영화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적인 경험, 즉 현실이 녹아든다. 연출자의 경험, 등장인물의 경험, 카메라가 있었던 공간의 기억과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난 영화를 보며 다양한 감정과 마주한다. 누군가의 기억과 마음, 경험이 스크린에 투영되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 닿는 과정을 생각하다 보면, 신비롭고도 먹먹한 감정에 휩싸이곤 한다.

<나의 연기 워크샵>은 다큐멘터리를 닮은 극영화이며, '연기'에 대한 영화인 동시에 '영화'에 대한 영화다. 작품은 현실과 연기, 그리고 환상이 혼재하는 과정을 현, 은, 준, 경 네 인물을 통해 그려낸다. 그들은 워크샵을 수강하며 '현'이라는 제3의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속아낸다. 그리고 카메라는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연기하는 모습을 고요하게 담아내며 일상과 연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현'을 창조하기 위해 네 인물은 타인의 속성을 막연히 상상하기보단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질문은 모두 그들 자신의 내면과 맞아 있다. 애써 모른 척해오던 불안과 오랜 시간 굶아왔던 감정들. 네 인물은 내면의 그늘에 잠식되어 있던 깊은 순간들을 향해 담담히 손을 내민다. 그리고 물어왔던 자신의 이야기와 불안을 마주할 때, 비로소 현, 은, 준, 경은 '현'이라는 인물과 서서히 겹쳐진다.

<나의 연기 워크샵>은 워크샵 강사이자 배우인 '미래'의 존재를 빌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한다.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것. <나의 연기 워크샵>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인물들의 마음을 열고자 한다. 그래서인지 미래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단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네 인물과 대화를 시도한다. "그때는 왜 그랬어?", "무슨 기분이었을까?"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미래는 현, 은, 준, 경의 내면에 존재하는 경험들과 그들이 현실에서 느껴왔던 감정들을 끌어낸다. 그 과정을 통해 네 인물은 '현'을 연기하는 것을 넘어, '현'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현'을 연기하는 과정은 영화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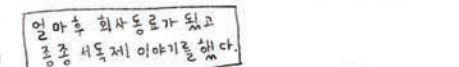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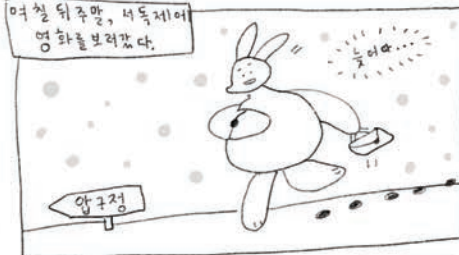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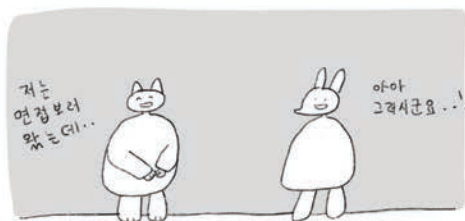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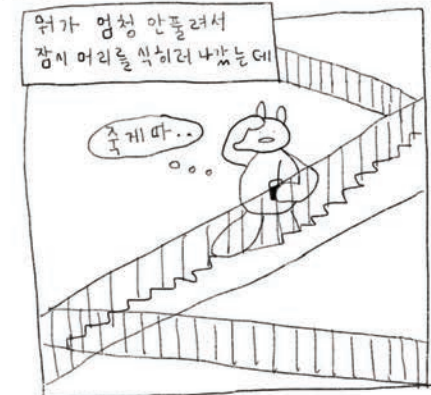
삶에서 묻어난 감정이 하나의 인물이 되고, 그 인물들이 모여 한 편의 영화가 된다는 것. 보통의 삶이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연기 워크샵>은 삶과 연기, 그리고 영화의 경계를 서서히 지워내며 삶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삶이 되는 소중한 순간을 포착해낸다.

영화가 끝나고 일상으로 발을 내디딜 때면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몽롱함과 마주친다. 그 순간이 문득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의 연기 워크샵> 속 네 인물을 떠올린다. 발 딛고 선 삶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물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영화. 어쩌면 보통의 삶이 빛나는 영화가 되듯, 영화적인 순간이 다시 빛나는 삶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빛이 났던 영화와, 영화를 빛나게 했던 이들의 흔적을 안고 돌아간다. 영화가 될지도 모를 아주 보통의 일상으로.

글 / 이지윤 (서울독립영화제2019 홍보팀)

영화를 사랑해서 극장에 출몰하는 미지의 생명체 '토끼리'. NOW에서는 매 호 토끼리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독립영화와 만납니다. 토끼리 손을 잡고 극장이라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보시길 바랍니다.

<호시절>



© 토끼리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 CGV아트하우스 명동역
-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 KT&G 상상마당 시네마
- 미디어트
- 서울아트시네마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 에무시네마
- 이리카페
- 인디스페이스
-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인천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 성남미디어센터
- 영화공간 주안
- 헤이리시네마

강원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 속초 동아서점

대전/충남/충북

- 대전아트시네마
-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전북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떼그)

광주/전남

- 광주극장
- 광주 맥거핀
- 광주독립영화관 GIFT
- 순천 책방심다
- 목포 시네마라운지 MM

대구/경북

- CGV아트하우스 대구
- 대구영상위원회
- 안동 중앙시네마
- 대구 오오극장

부산/경남

- CGV아트하우스 서면
- FROM
-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 창원 씨네아트 리움

NOW NO.20 2019.12

발행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지은, 이나현, 이은지

편집 김송요

진행 이지윤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2층 (04205)

문의 02-362-9513 / 02-334-3166 / siff@siff.kr

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발행됩니다